

마리아 하트빅 MARIA HATWIG 수녀

ND 4761

클라라 독터 Klara DOCTOR

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1929년 10월 14일 저 실레시아, 린데나우  
 서 원: 1954년 3월 25일 코스펠드  
 사 망: 2024년 12월 8일 코스펠드  
 장 례: 2024년 12월 17일 코스펠드 수녀원 묘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이 말씀은 마리아 하트빅 수녀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의 인도를 받도록 했다. 그 덕분에 길고도 사건이 많은 삶에서 많은 기회를 얻었다.

10 월에는 주변이 이미 많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기에 클라라는 태어난 지 며칠 후에 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세례를 받았다. 요제프와 카밀라 닥터의 네 자녀 중 장녀였다. 전기 기술자였던 아버지는 1939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클라라는 그뤼사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1946년에 사랑하는 실레시아 고향에서 쫓겨날 때까지 집안일을 했다. 가족은 알렌으로 이사했다. 이곳에서 기숙 학교가 있는 성 미카엘 학교의 큰 주방에서 일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할 기회를 얻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녀들의 주선을 통해 상업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 후에는 플하우젠의 노틀담 수녀회에서 유치원 교사를 위한 여성 직업 학교를 마쳤다. 교육 기간 동안, 자신도 수도 공동체에 입회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다.

클라라는 1951년에 알렌에서 청원기를 시작했다. 실레시아의 후보인 성녀 헤드비그에 대한 신심으로 수도명을 마리아 하트빅 수녀로 정했다. 수련기를 마친 후, 마리아 하트빅 수녀는 유치원과 기숙학교 그룹의 그룹 리더로 배정되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서 “기꺼이 돕고자 하는 밝은 마음, 진지한 책임감, 능숙하고 현명한 접근 방식,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과 공감의 결합된 공감 능력”이 입증되었다.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추가 교육을 받은 후, 하트빅 수녀는 코스펠드 립프라우엔슐레 유치원 교사 양성 과정의 실무 교육을 담당했다. 사회과학 및 독일학 분야의 또 다른 학위와 차후의 예비 봉사로 교직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수녀는 새로운 임무로 인해 교직을 마칠 때까지 코스펠드 립프라우엔슐레에서 또 다시 헌신적으로 가르쳤다.

1986년, 마리아 하트빅 수녀는 플하우젠 관구에서 관구장 직무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수녀를 동반했던 성경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십시오”에 따라 수녀도 그 요청에 동의했다. 두 번째 임기를 마친 후, 코스펠드로 돌아와 관구 비서직을 맡게 되었고, 그 직책을 매우 믿을만하고 특징적인 정확성으로 수행했다. 2008년부터 독일 관구 통합 이후에는 공동체 비서로 일했다. 은퇴 후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조용히 기도하고 특히 독서를 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하트빅 수녀는 자연, 특히 모든 것이 다시 싹트고 꽃피기 시작하는 봄에 큰 기쁨을 느꼈다.

어린 시절의 어려운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수녀는 특히 형제들과 가까웠다. 언제나 형제 자매와 그들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크레펠드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에도 기꺼이 참석했다. 수녀에게 특별한 기쁨은 휴가 때 알프스에서 자주 보내는 동안 이탈리아에서 온 조카들의 방문을 받는 것이었다.

95 세 생일을 맞이한 후, 마리아 하트빅 수녀의 체력은 서서히 쇠퇴해갔다. 수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살피고 돌보는 수녀들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수녀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었다.

2024년 12월 8일, 성모님 축일에 수녀는 다시 한번 하느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마리아 하트빅 수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라는 자세로 자신의 삶을 창조주 손에 다시 맡겼고,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안전하게 머물러 있다.